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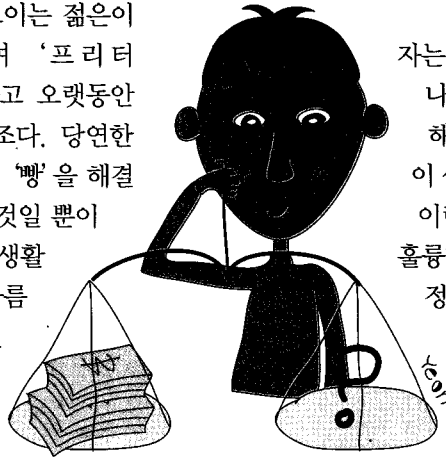


황금보기를 황금같이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일 본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보이는 젊은이들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프리터——(freeter)’. 가능한 적게 일하고 오랫동안 즐겁게 살자는 것이 이들의 생활신조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이 돈벌이를 하는 것은 ‘뺨’을 해결하는데 드는 최소 경비를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부모세대처럼 가족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BMW 같은 고급 승용차나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널찍한 집을 마련하려고 평생 허리띠를 조르며 살아가기를 거부한다. 물론 좋은 직장을 얻어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출세하겠다는 생각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는 꿈도 없다. 부모에게 얹혀 지내거나 이것 저것 잡일을 하며 푼돈을 벌며 호구지책을 해결하면 유흥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장래 무엇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꿈도 없는 이들이 태반이다. ‘근면과 절약이 몸에 밴 일 벌레’라던 일본인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별종(別種)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런 이들로 사회가 가득 찬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의 프리터는 10년 넘게 지속된 일본의 경제 불황기에서 성장기를 보낸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젊은이들이라고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부모의 꿈과 좌절을 보며 자란 이들이다. 우리 사회라고 해서 이런 프리터들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외환위기와 정보화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우리 사회도 평생을 보장하는 직장도, 직업도 없다는 인식을 각자에게 심어주었다. 일에 대한 보람이나 성취욕,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깨져버렸다. 게다가 취업문은



여전히 좁으며 실업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싹틀만하다.

이런 현실은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우리 가정의 자녀교육 제1조가 더 이상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늘어나는 고학력 실업자는 우등생 ≠ 출세임을 일러준다. 나는

오늘의 아이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돈의 바른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곧 일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이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전제라고 말한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녀가 돈벌이 기계처럼 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금융지수를 개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관념은 ‘황금 보기를 둘 같이 하라’다. 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안된다는 경귀였다. 그러나 이 뿐,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히 받은 황금을 소중히 여겨 바르게 관리하라’는 교육은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황금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는 가정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PPFK